

니까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④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모습은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명상의 특성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때의 마음 상태는 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탐욕, 분노, 무지를 멈추고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된 상태를 지향하는 명상과 달리, 흥분으로 들떠 있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쾌감과 흥분을 누리려 하는 모습에서 명상에 내재된 특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해보았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명상의 특징은 '마음이 어떤 감관대상에도 구속되지 않음(解脫)을 추구한다는 것' 또는 '탐욕, 분노, 무지 따위가 마음을 그르치지 않아

음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고, 몰입의 방법을 통해서 부적절한 마음상태의 그림과 고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상의 면모 하나가 발견된다. 나아가 감각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거기에 내재된 규칙성을 파악함으로써 지혜를 성취하게 되는 또 하나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것이 명상수행을 구성하는 두 축이라는 점으로 이해하면, 명상의 위상은 어디까지나 계율과 지혜의 사이에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살펴볼게 되겠지만, <니까야>에서 하나의 명상법을 안내하는 설명에서 계율지킴의 밀전으로 시작해서 지혜 성취의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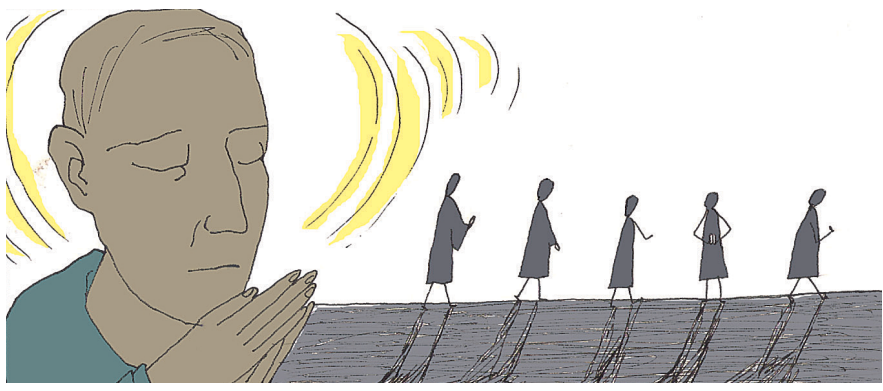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서 온전한 평온을 누리고 있는 상태(涅槃)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곧, 계율과 더불어 불교명상은 해탈과 열반이라는 불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공부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불교 명상이 해탈과 열반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공부영역인 계율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계율 정신으로 설명해온 '계학(戒學)'은 명상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이론체계인 정학(定學)과 동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며, 이 점은 세 번째 공부 영역인 '지혜의 갖추는 사유체계(慧學)'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동일 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이와 같은 '계정해(戒定慧)' 세 가지 공부에 동일한 가치를 두어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그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정해' 삼학(三學)의 위상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명상을 만병통치의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명상이란 일상에서 갖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 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

특정한 스승을 만나 특정한 명상의 방법을 익혀 그것만이 수행이고, 불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생겨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물론 명상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하나의 명상법이 다른 것보다 처음부터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한 주장을 펼치려면 바로 그 체험이 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니까야>에 따르면, 하나의 수행이나 명상법이 가치가 있을 경우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그림 또는 소멸'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그림 또는 소멸'을 지향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그 사람의 일상을 불교적으로 말하고, 불교적으로 생각하며,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꾸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하나의 특정한 방법을 익히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빈곤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사)굿월드자선은행은... 2001년 전북지역 불자 30명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들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자선은행'으로 시작됐다. 초대 이사장에 이상직(이스타항공 회장)이 취임했고, 2016년 2대 이사장에 양중현(주 트랜스헬리 이사) 이사장이 취임했다. 2009년 (사)굿월드자선은행으로 재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2005년 굿월드의 지나데이케어 센터 학용품 전달식 모습이다.

道伴의 향기

어린이 구호단체 NGO (사)굿월드자선은행

빈곤,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여러 형태의 '빈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 부(富)의 차별화로 인한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빈곤'이다. 하지만 부의 차별화에서 시작된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인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나 인류 전체가 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부의 차별화'를 논하기 이전의 문제인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적 차원과 인류적 차원의 고민과 해결을 위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 근거는 그 절대적 빈곤의 원인이 대부분 선택이 아닌 불가피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고민의 근거를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 한다면 다음 아닌 '인연법'일 것이며, 그 실천은 '희향'일 것이다. 그중 그 빈곤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일 때는 그야말로 사회적, 인류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그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이 있다. 어린이 구호단체 NGO '(사)굿월드자선은행(이사장·양중현)'이다.

어린이는 보호되어야 하는 '미래'

국적과 민족, 종교와 문화, 정치와 지역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사)굿월드자선은행(이하 굿월드)은 2001년 전북 지역(금산사, 송광사, 대원사)의 불자들 30여 명이 모여 지역의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소년소녀가정의 어린이들이야말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불가피성의 원인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한 계층당 월 3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3천 원짜리 후원 계좌 30 개, 굿월드는 그렇게 시작했다. 거창한 발족식도, 모금을 위한 성대한 행사도 없었다. 특별히 앞에 나선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누군

고 그 기획은 다음 아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선은행'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최소한의 교육'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양중현 이사장의 말이다.

후원 계좌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30명이 50 명이 되고, 50명은 100 명이 되고, 후원금은 점점 늘어갔다. 자선은행은 어린이들의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의 생활비 지원, 속도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자그만 국수집' 운영 등 사업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으며, 해외 지역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해외 재난 지역에 구호물품과 구호금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진정한 구호는 변화시키는 것"

2001년 전북지역 불자 30인 창립 소년소녀가정 어린이 장학사업 시작한 계좌 3천원, 30계좌 3000계좌로 국내 250명, 해외 52명 장학금 지원

지도 모르는 입에서 어린이를 돕자는 말 한마디로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단체가 현 굿월드의 전신인 '자선은행'이다.

"어린이는 작게는 부모의 책임과 크게는 사회의 책임으로 보호되고 길러져야 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미래이고, 한 사회의 미래인 것이죠. 그런 어린이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아니 최소한이라도 누려야 하는, 어린이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일상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가 바라봐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그 어린이에게 그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

해외 어린이도 '어린이'

2009년 9월 2일, 자선은행은 이때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으로 재탄생한다. 본격적인 해외 어린이 장학 사업을 위해서다. 당시 자선은행 회원이 필리핀 여행 중에 마닐라 인근 수컷 빠리냐케 다리 밑 판자촌을 보게 된다. 주민들은 썩은 물이 흐르는 강물 위에 판자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수시로 집들은 무너졌고 주민들은 썩은 강물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했다. 그들의 힘겨운 생활과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물 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국적과 인종의 경계를 무색하게 했다. 법인으로 재탄생한 굿월드는 판자촌 32가구의 어린이를 위해 월 1회 쌀 15kg과 학비 500페소를 지원했다. 굿월드는 2012년까지 지원사업을 이어갔으며, 주민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이주대책을 요청했다.

쓰레기 산에 핀 학교

2014년 7월 11일, 필리핀의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사우스빌에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굿월드 사우스빌 스테프 데이케어센터'다. 굿월드가 세운 학교다. 4~5세의 어린이를 위한 학교로 168명이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커셔도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PC칩 밀납양초 공장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칩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양초 특징 :

- ① 그늘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격 : 59φ ×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 심산자
- 란단향
- 후리지아
- 라이랄향
- 밀감향

우 창 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보)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어린이는 한 사회의 미래”



데이케어센터 아이들이 가톨릭 의식으로 아침 조화를 하고 있다.

정원이다.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사우스빌 지역은 필리핀 정부가 마닐라 수컷 빠라나케 다리밀 판자촌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도시 빈민 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마을이다. 이곳은 마닐라 등 인근 지역의 모든 쓰레기가 모아지는 쓰레기 매립지이다.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 마을에는 약 2500가구 1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조손가정으로 열악한 환경의 가정이 대부분이다. 주민의 절반 정도는 도시로 나가 일을 하고 절반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재생활 생업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은 ‘열악’ 그 자체다. 2013년 굿월드 지수적인 이주요청으로 수컷 빠라나케 다리밀 판자촌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굿월드는 이곳에 주목하게 됐고, 유치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긴 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유치원 졸업장이 있어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학교를 짓는 일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에 유치원을 짓겠다고 하니 후원금이 늘더라고요.” 현장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한 김규환 사무국장의 말이다.

7개월의 공사 끝에 유치원은 문을 열었다. 교실 3칸, 주방 1칸. 공사는 현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참여’라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1회성의 원조가 아니라 그들에게 ‘살’의 모습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굿월드는 같은 해 10월 13일, 필리핀 까비따주 망가한시 제네럴 트리우스 판자촌에도 같은 형식의 ‘지나데이케어센터’를 개원했다. 역시 4~5세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이며, 정원은 34명이다. 두 유치원 모두 교육과정은 2년으로 유치원의 교육 시스템을 필리핀 정부에서 진행하고 굿월드는 어린이들의 식사와 학용품, 의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매일 꿈을 꾸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해요. <중략>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나라를 만들 꿈을 꾸어요.”

노래에 맞춰 굿월드 사우스빌 스테프 데이케어센터의 졸업생 어린이 168명이 댄스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 후에 있을 졸업식 공연을 위한 연습이다. 필리핀에서는 시 전체 어린이들이 한 체육관에 모여 졸업식을 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말 할 줄 모르고 나서지 못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고 활발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진정

해외 장학사업 재난지역 구호사업

2014년 필리핀에 유치원 2곳 개원

“구호가 포교의 수단 되어서 안 돼”

매년 필리핀 어린이 202명 지원

한 구호와 진정한 보시는 1회성의 원조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변화된 모습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부모도 역시 아이들의 학교를 손수 지으면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나 뭐 하면 되요?”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건 뭐하러 해? 그걸 내가 왜 해?” 하던 주민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무엇이든 서로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저희들(굿월드)의 다음 사업은 해외 보건소 설립입니다. 굿월드가 하고 싶은 일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굿월드자선은행 이사진 모습.



2015년 필리핀 굿월드 데이케어센터의 크리스마스 파티 모습.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종교나 사상, 국적, 인종을 내세울 일이 아니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가 인류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중 누군가 묻더군요.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돕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불자들입니다. 불자란 무엇이나,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라고요. 필리핀은 가톨릭을 주종교로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처님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호단체와 봉사단체가 포교를 염두에 두고 현장을 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보다 우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포교는 종교를 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일이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을 알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굿월드는 지금까지 국내 어린이 250여 명과 해외 어린이 5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매년 필리핀 어린이 202명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30명으로 시작한 후원인은 2016년 현재 3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Good World를 위해

우리는 누구나 어린이였다. 매일 꿈을 꾸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어른들이 이끌어주어야 하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시절의 기억대로 살지 못한다. 앞서 말한 절대적 빈곤을 인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인류의 대부분이 그 어린이의 기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절대적 빈곤을 일으킨 불가피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그 결과들이 그 동심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동심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들이 만들어 낸 우리의 인연법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제2, 제3의 굿월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good world(굿월드)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굿월드는 오늘도 good world를 만들기 위해 힘겨운 어린이들을 찾아 나선다. (사)굿월드자선은행 후원전화 1661-9585. 박도일 수필가

전법일기

“원장 시님은 언제 성불하세요?”

내가 있는 구미 연꽃어린이집의 하루는 어느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시끌벅적하게 시작한다. 평소, ‘생각 주머니’를 키우는 놀이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우리 친구들의 수다는 끊임 없이 끊이지 않는다. “원장 시님, 제가 어제 밤에 생각한 건데요”로 시작해서 기발하고 자유로운 생각에 대한 수다들이 쏟아진다. 연꽃어린이집의 친구들과의 입 속에서는 매일 연꽃향기와 연꽃 소리가 진동한다. 우리 연꽃둥이들은 나뿐만 아니라 어느 스님을 만나더라도 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큰 소리로 인사한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 하루에 열 번을 만나면 열 번을, 이렇게 인사한다. 화장실에서 만나도, 놀이터에

문을 쏘아냈다. “원장 시님~ 시님은 언제 성불하세요?” 매우 근원적이면서 수행자에게는 곤란한 질문이다. 당황하는 나에게 “원장 시님이 성불하면 우리가 ‘성불하세요’라고 인사 안해도 되잖아요”라고 췌기를 박는다. “절다. 나의 완벽한 KO패다. 빨리 성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얼른 자리를 떴다. 다음 날, 그 아이를 복도에서 다시 만났다. 아이가 당장 나를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원장 시님, 혹시 오늘은 성불 하셨어요?”라고 묻는다. “음, 아니, 아직...” “그럼 내일은 꼭 성불하세요.”



그림 · 박구원

서 만나도 늘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한다. 하루는 한 아이가 물었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는 무슨 인사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가진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반가웠다. 즉시 대답해줬다. “성불하십시오”는 ‘부처님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던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원장 시님은 다시 아기가 되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재차 물어보니 돌아오는 아이의 답변에 말문이 ‘딱’ 하고 막혀왔다.

“원장 시님이 맨날 우리보고 ‘아기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장 시님한테 ‘아기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내 말문을 막아놓고 아이들은 “아~ 원장 시님도 노란연꽃반하고 싶었구나. 우리랑 같이 놀고 싶었구나”라고 약속을 올리면서 떠든다. 이럴 때면 요즘 말로 ‘대략 난감’하다. 이런 천진무구함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나.

좀 더 시간이 지나자 하루 열 번씩 인사하는 것이 아이들도 귀찮아졌다 보다. 또 다시 한 연꽃둥이가 나를 불러 세우고 질

다음날도 만난 그 아이는 다시 나에게 성불 여부를 물었다.

“원장 시님, 혹시 오늘은...” “음, 오늘도 아직 아니야. 오늘도 ‘원장 시님 부처님 되세요’라고 인사해줘.”

“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 어린이집에 오자마자 교무실로 뛰어나와 “원장 시님, 나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친구들. 모두 친구, 어린이집, 원장 스님 생각뿐이다. 이런 ‘어린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찌 수행을 게을리 할 수 있을까?

어릴 적 노스님이 목욕을 시켜주시면 서 목욕 때는 때수건으로 닦아내도 마음의 때는 너 자신이 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내 인생의 화두가 된 <반야심경>이다. 이 마음으로 나는 연꽃어린이집 대장 노릇을 씩씩하게 하고 있다.

“그나저나 우리 친구들에게 ‘성불하십시오’ 인사를 안 들으려면 빨리 성불해야 할 텐데, 정말 어떻게 하지?”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중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중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주구 12E 3구, 4구 인지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입 용품

일사형 S형 T보리형

LEDH사형 LED홀더형 간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